

등록번호 서울다-10691  
 등록연월일 포덕 154(2013)년 8월 7일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9층  
 전화:02-735-3296 / 02-732-3956  
 FAX:02-725-7718  
 http://www.chondogyo.or.kr  
 구독료:1부 1,300원, 연간 30,000원

# 천도교신문

제189호(통권584호) 포덕 163(2022)년 3월 3일(목요일)  
 발행인: 송범두 / 편집인: 김주관 / 인쇄인: 윤병업 / 발행소: 천도교중앙총부



## 3·1정신의 핵심은 '독립' 과 '자주'

우리 민족공동체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첫 번째 가치

### 제103주년 3·1절 기념

포덕 163년 3월 1일 천도교중앙총부



3·1운동 103주년 기념행사가 3월 1일(화) 오전 11시 중앙대교당과 전국 교구에서 병행되었다. 중앙대교당에서 봉행된 합동기념식은 전명운 교화관장의 집례로 국민의례에 이어, 주영선 여성회 총무부장의 청수봉전, 매암 이재선 청년회장의 독립선언서 낭독, 천덕송합창(공략가1~3절), 신암 송범두 교령의 기념사, 3·1절노래 합창, 맹암 정의맹 연원회회장의 만세 삼창이 이어졌다.

송범두 교령은 기념사를 통해 “독립선언서의 첫머리에서 밝힌 것처럼 ‘독립’과 ‘자주’가 3·1정신의 핵심”으로 “3·1정신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첫 번째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송 교령은 “만물이 모두 한울님을 모셨으니 우주 만물이 다 하나요, 오십즉

여심(吾心即汝心)의 시천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정신개혁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천도교는 천도교인만의 것이 아니라 하셨으니, 이는 온 누리에 펼쳐야 하는 포덕천하의 과제”라 강조했다.

이날 송 교령은 민족대표 33인인 홍암 나인협 선생의 묘 표지석 복원과 홍상 건립을 위하여 관련 사료를 고증하고 자문하여 홍암 선생의 애국정신과 천도교의 독립운동 내용을 부산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공헌한 성강현 연원회 부의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합동기념식에는 고위험군(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현저히 낮은 교인은 참여를 금지하고 식사 제공도 금지하였으며, 기념식은 온라인(유튜브)을

통하여 기념행사 영상을 송출하였다.

기념식 후 오후 1시부터 대교당 앞 마당에서 3·1절 103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로 ‘삼일 회생 영령 국민추모제’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박충남 의창수도원장은 우이동 봉황각을 찾은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 등과 함께 의암성사 묘소를 참배하였다.

한편 3·1절 기념 전야제 행사가 2월 28일(월) 오후 6시 30분 중앙대교당에서 ‘의암 성사 순국 100주년 기념 문진오 서사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2~5면)

### 제40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교헌 제29조에 의거 제40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1. 일 시 : 포덕 163년 3월 17일(목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천도교중앙대교당
3. 안 건 : (1) 교헌개정(안) (2) 임원선출 (3) 기타

포덕 163년 2월 9일  
 천도교중앙총부  
 교령 송범두



보신 새종개

교단 주요 동정

- 3월 1일
  - 제103주년 31절 기념식
  - 10시, 임시정부기념관 (정부 주관, 교령 참석)
  - 11시, 중앙대교당 (기념식)
  - 13시, 중앙대교당 앞마당 (민족공동행사, 교령 대회사)
- 3월 5일
  - 중학대학원 수료식(11시, 대교당) 입학식(13시, 907호)
- 3월 10일
  - 제158주기 대신사 순도일 및 순도선열 합동위령식 / 11시, 대교당
- 3월 17일
  - 제40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 10시, 대교당
- 3월 18일
  - 포덕 163년 정기연원회의 / 10시, 대교당
- 3월 22일
  - 울산 동학관 개관식 / 14시
- 3월 25일
  - 제21차 여성회 정기 전국대의원 총회 / 14시, 대교당

## 기념사



존경하는 국내외 동덕여러분!

오늘은 청사에 빛나는 3·1독립운동이 일어 난지 103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항상 이날이 되면 우리 천도교인들은 3·1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천도교단의 위대한 역사를 상기 하면서 특별한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기미년(己未年, 1919)의 3·1독립운동은 모름지기 민족정신의 정화(精華)로서 우리 민족사에 처음 있는 장엄한 행진이었습니다.

국권을 침탈한 일제가 무단통치를 자행하던 식민 치하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동귀일체(同歸一體)를 이루었던 3·1운동은 민족사에 있어 불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전문(憲法前文)에 3·1정신을 건국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암성사께서는 1910년에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하자 "앞으로 국권회복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이니 반드시 10년 안에 이것을 이루어 놓으리라"고 결연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학교와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사회단체를 해산시키는 한편 언론·출판·집회·결사를 일체 엄금하였습니다. 특히 배일성향이 강한 천도교를 유사종교(類似宗敎)로 분류하여 여타 종단과 달리 경무국에서 관찰토록 하면서 성미제(誠米制)의 폐지와 경진 내용 일부를 삭제하도록 강압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의암성사를 헌병대로 불러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은식(朴殷植)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일제는 천도교에 대한 음해 중상은 물론 종교단체임을 부인하면서 각지의 교구를 감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의암성사께서는 천도교의 지도자로서, 또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정신적으로 일제의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쌍두마차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민족적 자존심을 과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경술국치 이후 천도교의 교세는 국내는 물론 만주지역으로까지 크게 확장되어 3백만에 이르는 최대의 교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동덕 여러분!

3·1운동은 수운대신사의 보국안민정신에 입각한 의암성사의 구국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결정(結晶)이며 민족사적 쾌거였습니다. 당시 대중화·일원화·비폭력의 독립운동 3대 원칙을 비롯해서 거사자금의 전담, 우이동 봉황각에서 전국 중견 교역자 483명 49일 특별수련, 중앙대교당 건축을 명분으로 거사자금 마련, 33인 민족대표의 선정,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 인쇄, 거사 당일의 「조선독립신문」 발행 등 시종일관 천도교단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역할에 의해 종파를 초월한 거국적 3·1독립운동이 들불처럼 국내외로 전개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천도교에서 비밀리에 발행한 「조선독립신문」은 군중들의 만세시위에 대해 "손발로 춤추듯(手舞足蹈) 바람과 조수가 휘몰아치는(風蕩潮湧) 기세로 장안(長安)을 뚫고 나갔다"고 하면서, "죽은 고목(枯木灰死)이 아닌 우리 민족, 간혀있는 금붕어나 새(金魚籠鳥)가 아닌 우리 민족으로서 누가 감격하여 울지 않으리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헌병경찰을 앞세운 무단통치 아래서 일제의 삼엄한 정보망을 뚫고 거족적으로 이루어진 3·1운동은 한마디로 한울님의 감응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학계 일각에서도 3·1운동에 대해 기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3·1운동으로 인해서 천도교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암성사를 비롯한 민족대표 외에도 대도주인 춘암상사님을 비롯해서 교단 지도부가 거의 체포 구금되는 것은 물론, 중앙총부는 용산의 일본군 1개 대대가 포위 점령하여 기능이 마비되었고, 전국적으로 교인과 교구의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재정적인 피해 또한 극심하여 교단에서 경영하던 보성전문학교와 동덕여학교를 비롯한 많은 교육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이와 같이 막대한 피해를 당했으나, 3·1독립운동은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며 임시정부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외 여러 임시정부가 형성되던 초창기에는 의암성사님을 국가수반으로 추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우리 민족이 3·1운동에서의 의암성사님의 영도력은 물론이요 천도교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동덕 여러분!

3·1정신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첫 번째 가치라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독립선언서의 첫머리에서 밝힌 것처럼 '독립'과 '자주'가 3·1정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大義)를 극명하며, 차(此)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正權)을 영유케 하노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천도교가 3·1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차원을 넘어 3·1정신이야말로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하기 위해 우리 민족이 반드시 지키고 공유해야 할 가치요, 대의명분이라는 사실입니다.

3·1운동이 일어 난지 103주년이 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뿐만 전 세계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그대들은 가히 하지 못할 일을 생각지 말고 먼저 각자가 본래 있는 정신을 개혁하라"는 의암성사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우리 천도교는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도교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다함께 하여야 합니다. 선열들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한 정신으로 민족의 웅비와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도전의 여정을 함께 열어 나갑시다.

만물이 모두 한울님을 모셨으니 우주 만물이 다 하나요, 오심즉여심(吾心即汝心)의 시천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정신개혁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한 천도교는 천도교인만의 것이 아니라 하셨으니, 이는 온 누리에 펼쳐야 하는 포덕천하의 과제입니다.

물질문명의 발달에서 야기되는 각자위생, 대립과 갈등, 민족의 분단, 자연의 파괴 등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광재창생 하는 것은 인내천의 동귀일체로써 사람답게 사는 세상인 지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여야 할 포덕천하로의 행동이 절실하다 하였습니다.

오늘 103주년 3·1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3·1정신을 상기하면서 기념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3(2022)년 3월 1일 교령 송범두 심고



**3·1 희생 영령 국민추모제** 3월 1일 오후 1시부터 대교당 앞마당에서 3·1절 103주년기념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주최로 3·1 희생 영령 국민추모제가 개최되었다. 송범두 교령은 대회사를 통해 "3·1정신의 완성이 인류 공존, 공생실천"이라 하고, "사람을 공경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시대를 열어 가자"고 하였다. (탁암)

## 제40차 대회 대의원 자격 심사회의

- 대의원179명 심사확정



2월 22일 수운회관 907호에서 중무원장(준암 박인준)은 대의원자격 심사회의를 개최하여 대의원 179명을 확정하였다. 이날 자격심사는 대회대의원선출규정 제6조에 따라 중무원장이 주관하고 성강현 연원회 부의장, 정갑선 종의원 의장, 염상철 감사원장대행, 전명운 교화관장, 장구갑 사회문화관장이 참여하였다. 대의원 명단은 천도교 홈페이지 커뮤니티/공지사항에 2월 24일 공지하였다. (중무원)

## 총의원 제8차 정기총회 개최

- 포덕 162년도 사업 및 결산 심의



총의원(의장 정갑선)은 2월 19일(토) 오후 1시 수운회관 3층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최홍규 부의장의 사회로 점명(성원보고), 개회, 청수봉전, 심고, 주문3회병송, 인사말(의장 정갑선), 박인준 중무원장 격려사에 이어 영상으로 정의맹 연원회 의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전차회의록 보고에 이어 안건 심의가 계속되었다. 안건은 ▶중앙총부 포덕 162년도 사업경과 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서(안) 심의의결 ▶유지재단 포덕 162년도 사업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안) 심의의결 ▶규정 개정(안) 등이다.

| 조항           | 현행  | 개정안   |
|--------------|---|---|
| 연원회 운영규정 제7조 | 연원회 회의는 정기연원회의와 임시연원회의로 정한다.<br>①정기연원회의는 의장이 매년 2월에 소집한다. | 연원회 회의는 정기연원회의와 임시연원회의로 정한다.<br>①정기연원회의는 의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개정사유 및 경과: 연원회에서 교헌개정을 위한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취소로 인하여 포덕 162년 4월 13일 공포된 연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정기연원회 소집시기를 재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제안. 제16차 중무위원회의(163.1.25) 연원회운영규정 개정(안) 통과.

[고침] 본지188호 1면에 실린 표에서 2월과 3월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위 표의 '연원회 운영규정 제7조'가 올바른 것입니다. 착오없기를 심고합니다.

## 정기 감사 회의

- 전년도 사업 결산 등 3일간 감사



개회사를 하는 염상철 감사원장 대행

감사원은 2월 10일 수운회관 907호에서 정기감사 개회식을 봉행하였다. 금번 감사는 2월 12일까지 3일간 중앙총부 및 부문단체, 산하기관의 포덕 162년도 사업의 결산 등을 감사하는 정기감사이다.

개회사에서 염상철 감사원장대행은 “지난 3년간 코로나와 각종 송사로 얼룩져 목적인 바를 이루지 못한 바 많았으며, 해결 못한 것을 다음 집행부에 넘겨주게 되었다”며 ▶각 기관 운영 3년을 돌아보고 차기 집행부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기본 지키는 인수인계를 할 것 ▶소송, 고소, 고발로 교회법이 무력화 된 것은 잘못된 인사로 인한 것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감사 ▶지적 감사가 아니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감사 ▶3년마다 하는 연원수보를 매년 하도록 감사원 결의를 할 것 ▶사회복지법인 운영 정지에 대한 엄격한 감사를 할 것 등을 감사원칙으로 제시하였다. (각암)

## 제3차 여성회 중앙위원회의 개최

- 천도교여성회본부에서 '천도교여성회중앙본부'로 명칭 변경



여성회본부(회장 박차귀)은 2월 17일 오전 11시 중앙대교당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앙위원 48명 중 위임장 제출 22명과 참석 25명으로 성원되었으며 이순중 고문과 감사(박태량, 이미희) 2명도 참석하였다. 박차귀 본부회장 개회사에 이어서 송범두 교령의 격려사가 있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이미희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포덕 162년 사업결과보고서 및 결산안, 포덕163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안, 기타 안건으로 ㉠제21차 정기전국대의원총회 개최의 건 ㉡천도교여성회 창립 제98주년 기념식 개최의 건 ㉢천도교여성회 창립 100주년기념사업 추진단 구성의 건 ㉣규정·규약 수정 개정의 건 ㉤고문 추대의 건 ㉥청수상 제작 배포의 건 ㉦우이동 여성교육복지관 활용 방안의 건 ㉧회보성금 및 회관건립 성금 납부 독려 ㉨기타 안건으로 감사원과 종무원에서 김순홍의 징벌결정통보로 결정된 사항을 심의 및 논의하였다.

한편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천도교여성회본부 명칭을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처럼 '중앙'자를 넣기로 하고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동의 제청되어 통과시키고 제41대 집행부의 마지막 중앙위원 회의를 무사히 마쳤다. (글/사진. 신주민)

### 제21차 정기전국대의원 총회 소집 (천도교여성회)

1.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모시고 새롭게' 교회와 여성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여성회 본부에서는 포덕 163년 제21차 정기전국대의원 총회를 규약 제3장 13조 및 규정 제 7장 38조, 4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일 시: 포덕 163년 3월 25일(금), 오후 2시
2. 장 소: 천도교 중앙대교당
3. 안 건: 1) 경과보고 2) 임원 선출 3) 기타

(\*당일 오전11시에는 천도교여성회 창립 제98주년 기념식을 봉행합니다.)

천도교여성회중앙본부 회장 박 차 귀 심고

## 사설

### 3·1정신으로 대통합의 세상 만들자.

올해도 변함없이 3월 1일은 돌아왔다. 103년 전 그날의 3월 1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역사 속의 그날은 우리의 의식을 자극한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온갖 압제와 박해 속에 시달리다 민족의식을 눈을 뜨고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날이 바로 1919년 이 날이다.

나라와 겨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천도교에서는 3세 교조 의암성사께서 앞장서 1912년 우이동에 봉황각을 짓고 지도자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1914년까지 49일 간씩 7회에 걸쳐 483명을 수련시키고 동시에 법설을 통하여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였다. 이는 민족에게 의식의 눈을 뜨게 하여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양성된 지도자들이 나라 곳곳으로 나아가 천도교 정신을 펴고 아울러 항일운동의 선봉에 서서 활약하였다.

그것은 천도교 수련활동처럼 시작했지만 민중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발전하였다. 다르게 말하면 3·1운동은 민중이 타자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했던 민중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었던 자각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의암성사의 지도자 양성은 처음부터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민족의 자존과 인간성을 부활시킨 위대한 교육이었다. 그러한 의미가 3·1독립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3·1운동은 갑오혁명 이래 최대의 민중운동이었다. 이념과 종파를 초월하여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민족운동이었다. 천도교에서는 우리의 역사 중에 3·1운동을 천도교 3대운동의 하나로 자랑한다. 일제강점기에 발행되었다가 차압된 『천도교회월보』 7월호 기사를 보면 “우리의 역사 중에 갑오혁명, 갑신혁명, 기미운동, 이 셋이 확실히 천도교의 자랑임과 동시에 조선의 자랑이다. 세계 종교 중에서 조금도 손색없는 운

동이며, 우리는 이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피가 끓고 몸이 뛰며 실로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적고 있다.

역사적으로 3월 1일이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념식을 벌였다. 3·1정신을 기리거나 희생자를 추모하기도 했고, 현실 투쟁 속에서 3·1정신을 직접 구현하는 기념일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해방 이후 침에 하게 대립하던 좌·우파는 3·1절 기념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충돌하기 일쑤였다. 3·1절 기념식을 사회주의자들은 실천적인 ‘기념투쟁’으로, 민족주의자들은 행사 위주의 ‘기념식’으로 열었다. 좌파는 3·1운동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성공한 운동’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극복해야 할 ‘실패한 운동’의 전형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그것을 기념하는 방식이 실천적인 기념투쟁 양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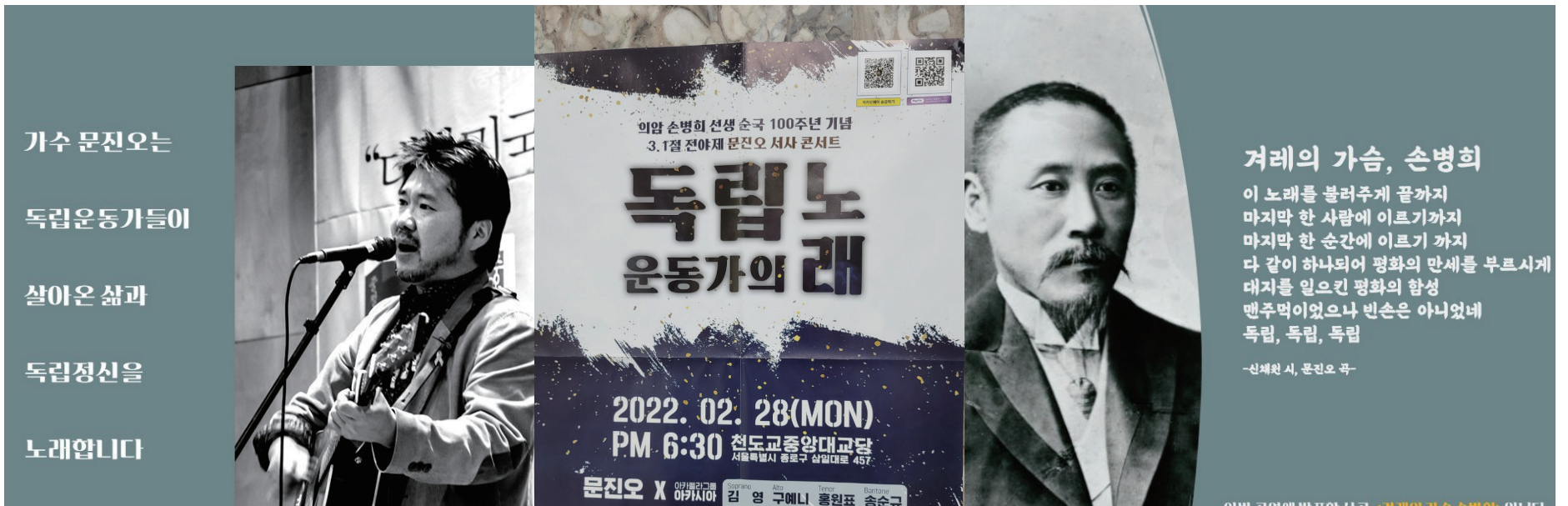
3·1운동 자체는 전민족적이었으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식은 일제 강점기에 이미 분열적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좌·우의 역사관 차이에서 기인한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3·1운동이 지닌 민족 공동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부에서 3·1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고 해마다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름지기 3·1정신의 요체는 생존권 회복을 위한 통합의 정신이다. 지금 우리 종단이나 나라는 편가르기식의 증병에 처해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 때문만도 아니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만도 아니다. 각자위심과 지나친 이기심, 그리고 나만이 옳고 너는 그르다는 자기중심적 사고의 결과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개혁의 정신으로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참회와 용서, 화해와 상생을 통한 대통합만이 시대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될 것이다.

| 3·1절 성금 (163.3.1.) |         | 박길수     | 서울  | 30,000 | 김금자    | 삼선  | 10,000          |         |
|--------------------|---------|---------|-----|--------|--------|-----|-----------------|---------|
| 서민중                | 청원      | 100,000 | 박성원 | 성동     | 30,000 | 김학립 | 서울              | 10,000  |
| 청원전교실              |         | 100,000 | 심경례 | 도봉수유   | 30,000 | 장호선 | 삼선              | 10,000  |
| 김산                 | 마포      | 50,000  | 이승민 | 송탄     | 30,000 | 무기명 | 도봉수유            | 30,000  |
| 성강현                | 연원회부위원장 | 50,000  | 한규상 | 도봉수유   | 30,000 | 무기명 | 한강              | 20,000  |
| 이창호                | 강남      | 50,000  | 김경규 | 서울     | 20,000 | 무기명 |                 | 10,000  |
| 이흥자                | 마포      | 50,000  | 박수현 | 수원     | 20,000 |     |                 |         |
| 정의맹                | 통영추위    | 50,000  | 주영선 | 한강     | 20,000 |     |                 |         |
| 김경숙                | 서울      | 30,000  | 한행복 |        | 20,000 | 우수영 |                 | 500,000 |
|                    |         |         |     |        |        |     | <b>중앙도서관 성금</b> |         |

# “독립운동가의 노래” 콘서트 열려

-의암 손병희 성사 순국 100주년 기념



가수 문진오는  
독립운동가들이  
살아온 삶과  
독립정신을  
노래합니다

제103회 3·1운동 기념일과 의암 손병희 성사 순국 100주기를 맞이하여 2월 28일(월) 오후 6시 30분, 3·1절 전야 행사로 문진오 서사콘서트 “독립운동가의 노래”가 1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민족대표로 3·1운동을 영도하셨던 의암 성사 순국 100주년을 기리는 의미를 담아 ‘천도교 중앙 대교당’에서 시작되었다.

‘천도교 중앙대교당’은 천도교 3대 교조였던 의암 손병희 성사의 주관으로 1918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1921년에 완공되어 작년에 건립 100주년을 맞이한 서울특별시 유형 문화재이기도 하다. 대교당 건립 목적이 독립자금 조성이었음이 천도교 문건에서 확인되었을 만큼 대교당은 3·1운동과



밀접한 관계다. 공사비를 조성하는 명목으로 교인들의 성금을 모아 3·1운동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완공이 늦어지기도 하였다. 천도교 중앙 대교당은 김구 선생이 한국 후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천도교가 없었다면 중앙대교당이 없고, 중앙대교당이 없었다면 상해 임시정부가 없고, 상해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독립도 없었을 것외다”라고 밝혔을 정도로 3·1운동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다.

이날 콘서트를 연 가수 문진오씨는 “이곳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집회를 열고 독립을 꿈꿨다. 그때 그 엄숙했던 시절 대교당에 모여 독립을 꿈꿨던 선조들을 기리며 ‘독립운동가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말하고 다음과 같이 이번 콘서트의 의미를 밝혔다.

“어떤 노래는 비장하고 어떤 노래는 슬플 것이며 또 분노하고 낙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라고 말씀하셨던 의암 성사의 마음을 부족한 저의 능력이지만 조금이나

마 담아보려는 심정으로 노래하려 합니다.

동학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인권 신장과 민주화를 위한 기나긴 우리의 역사가 아직도 수구 기득권층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건 외세에 의해 뒤틀린 우리의 역사, 그리고 아직도 뿌리가 건재한 친일파들, 이웃과 사람들 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주위를 짓밟고 민족을 팔아 이득을 취한 이들이 정당한 심판을 받지 못함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서사 콘서트로, 각 노래에 얽힌 서사들이 낭독이나 영상, 자막으로 제공되었다. 독립연구 활동가 신채원 시인이 글을 썼고,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가 노래에 힘을 보탰다.

서사 콘서트에 소개된 노래는 모두 18곡으로, 공연은 독립군 추도가를 시작으로, 겨레의 가슴 손병희, 죽창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의병장 황병학의 노래, 목숨이 경각인 아들에게, 가곡지 회화나무(권오설 선생 88주기 추모시), 최운산 장군, 혁명의 강물에 뛰어든 김알렉산드라, 조선인의 발, 귀향, 우리가 건설할 국가는, 민족주의자의 길, 고향, 분단 아리랑, 껌데기는 가라, 서시, 광야 등이 불러졌다. (탁암)

## 삼일절 맞아 의암성사 묘소 참례 및 헌화

박겸수 강북구청장 등, 강북구청 주관으로



서울 우이동 봉황각에서는 강북구청이 주관하여 박겸수 구청장과 부구청장, 각국장 등 13명은 도선사에서 타종식을 하고, 11시에 의암 성사 묘소를 참배하고 헌화하였다. 박충남 의창수도원장은 “올해의 3·1절 기념행사는 의암 성사께서 순도, 순국하신지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회상하고 “순국정신을 기리자”고 강조하였다. 묘소 참례 후에는 봉황각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3창하였다. (글:사진/박충남)

## 동학문화해설사 양성과정 2기 수료

19명 수료, 박충구 도훈 최우수 해설사로 선정



지난해 연말 ‘2021년 동학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영상강의와 현장답사를 마친 19명의 수료자가 1월 20일 수료증과 동학문화해설사 자격증을 수여받았다. 최우수 문화해설사는 울산의 박충구 도훈이며, 2기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역(권윤호 김세환 김영희 남연호 유경수 최홍룡) 경기(김용필 박도선) 인천(함경숙) 강원(임찬경) 충남(김선덕 윤여진) 전북(조계일 안경명) 대구(조기현) 경북(김성표) 경남(서소연) 울산(박충구) 부산(도라지) (글:사진/최인경)

## ‘경주 3·1 독립만세운동 발상지’ 기념표지석 설치

경주 노동동 봉황대 부근, 경주시 주관으로



경주시는 삼일절을 맞아 3월 1일 오전 10시, 경주 노동동 봉황대 부근에 ‘경주 3·1 독립만세운동 발상지’ 기념표지석을 설치하였다. 제막식에는 경주지역 천도교인들과 경주시장을 비롯한 시민 3백여 명이 참석하였다. 표지석은 봉황대 야외공연장 한쪽에 설치되었고 가로1m, 높이1.8m의 화강암에 ‘경주 3·1 독립만세운동 발상지’로 표기하고, 하단에는 다음과 같이 새겼다.

“이곳은 경주읍내 작은 장날인 1919년 3월 15일 경주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역사적 장소이다. 노동리 교회(현 경주제일교회) 신자를 중심으로 3월 13일 틈 장날 만세시위를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군중에게 알려졌고, 마침내 3월 15일 기독교인, 천도교인 수많은 읍민이 참가하여 양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힘차게 외쳤다. 이들의 투철한 이 독립정신을 길이 후손에 전하려 여기에 비석을 세운다. 2022.3.1. 경주시” (글.사진/최상락)

##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

남해지역 교구연합, 남해 3·1운동 발상지 기념탑 참배



남해지역 교구연합은 천도교인들과 남해지역 정관계 사람들과 함께 3월 1일 설천면에 위치한 남해3·1운동 발상지 기념탑을 참배 현화했다. 이날 참배한 교인들은 “103년 전 소 팔고 논 팔아 힘 보태고, 이 땅 곳곳에서 독립을 외치며 헌신하신 선열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글.사진/정효종)

## 포덕 163년도 정기연원회의 소집

일시 : 포덕 163년 3월 18일(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 중앙대교당

의안 : ① 임시의장 선출

② 의장단 선출

③ 포덕 163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④ 기타

연원회 의장 정의맹 심고

## 자료소개

## 『몽학필독 蒙學必讀』

### 천도교인을 위한 한글 교과서 발행

동학혁명의 영향으로 실시된 갑오개혁 이후 국문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공문서에도 한글 사용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한글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한글의 사용과 학습 영역도 확장되어 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근대계몽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국문을 교과목으로 개설하였고 한글 교육을 위한 다양한 기관과 연구자들에 의해 교과서들이 출판되었다. 한글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된 시기 천도교에서도 한글 익히기 국어 교과서로 『몽학필독』을 발행하였다. 『몽학필독』은 1910년 2월 이후 출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 천도교는



대중적 교육사업 및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였다. 천도교가 한글 교과서 『몽학필독』을 출판한 배경은 대부분의 교인이 농민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한자보다는 한글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몽학필독』은 1977년 아세아문화사에서 발행한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에 소개되었으며, 1980대 후반 박봉배와 이응백의 국어교육학의 교재사적 연구로서 알려졌다. 『몽학필독』은 네 권으로 출판되었지만 현재 <권 1>만 확인되고 있다. 판권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료의 한계가 있지만 『몽학필독』에 대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첫째 편술자는 최재학이며, 둘째 발행연대와 발행소를 확인할 수 없으며, 셋째 초등저학년용 국어 교과서로 초학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넷째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에서 출판하였고, 다섯째 천도교를 배경으로 한 출판기관에서 발행하였으며, 여섯째 순국문으로 한자가 전혀 없고 삽화 등으로 볼 때 일찍이 개발된 교재이다.

### 재령 교인 최재학이 편술

『몽학필독』을 편술한 최재학은 황해도 재령군 청수리면 부천리 출신으로 도호는 극암克菴이다. 1905년 을사늑약 때 ‘사수독립死守獨立’이라는 혈서로 복권상소를 하여 일본군에 체포되었다. 서북학회 평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1910년 천도교에 입교하였다. 이후 중앙총부 현기관 편집원과 학무원을 역임하였으며, 1913년 박일병 등과 함께 천도교혁신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출교당하였다가 복교되었다. 복교 후에는 재령군에서 종리사, 경리와 대표위원, 주간포덕사, 경도사 등 원주직을 역임하였다. 최재학은 『몽학필독』 외에 『실용작문문법』과 『문장지남文章指南』 등 다수의 국어 관련 교재를 저술한 바 있다.

『몽학필독』은 장수와 과제가 없이 구성되었으나 이를 구분하면 자모字母, 합자合字, 삼합자三合字 등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자모는 자음과 모음의 구성, 합자는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총 52개 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음과 자음, 단어와 문장을 쉽게 익히기 위해 삽화를 함께 실었다. 이는 학습에 대한 이해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다.

### 대신사, 중앙대교당과 오관 등 소개

『몽학필독』 후반부에는 문장을 통한 학습을 유도하고 있는데, 특히 천도교와 관련된 내용을 상당 부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로에서 먼동으로 올라가면 안동 네거리가 있고 네거리에서 대안동으로 올라가면 중앙총부가 있습니다. ▶중앙총부는 이층 양옥으로 지었습니다. ▶오늘은 시일날이오 여러 교인들이 중앙총부 교당에 모여서 성사의 대도주 모시고 텃떡송 부르는 소리 반갑습니다. ▶대신사의 성은 최오 일흠은 제우오 주는 성목이오 수운은 별호시니 경주 가정리에서 나셨습니다. ▶성미 뜨는 세에 참 정성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복 만히 받습니다. ▶성수의 하늘 갖하신 은혜로 우리를 가리쳐 주시니 매우 감축호오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모조록 성수의 은혜 감기를 생각하옵시다. ▶시계의 소리 한 소리 두 소리에 하오 아홉시 되었스니 맑고 맑은 물써다 청슈모시오.

### 독자적인 한글 교육관 잘 드러나

『몽학필독』은 한글 교과서라는 측면에서 한글 자모의 범례나 명칭의 제시법, 학습법에서 『훈몽자회』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한글 교육관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언어교육에 대한 목적과 무게감을 갖는 동시에 천도교 입문자 또는 교리 학습자를 위한 초보적인 교리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교육학적인 가치와 일제의 핍박 속에서 천도교의 울타리를 빌어 한글 교육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희암)

## 남해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

- 2월 22일, 남해군의회, 기념사업 등 지원



남해군의회(의장 이주홍)는 2월 22일 제256회 임시회에서 정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남해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학술,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 등의 사업 추진을 담고 있다. 남해군은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탁암)

## 제2차 경주동학역사문화사업회 총회 개최

- 2월 19일, 용담교구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키로



경주 용담교구에서 2월 19일(토) 오후 2시 경주동학역사문화사업회(이사장 최상락, 경주동학사업회) 제2차 정기총회가 정회원 40명 중 16명 참석, 22명 위임으로 성원이 되어 개최되었다. 경주동학사업회는 지난해 9월 25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해월최시형생가주변공원화사업회를 '경주동학역사문화사업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지난해 경주동학사업회는 어린이날(용담정 일대, 황성공원, 체육관) 행사, 동학 강좌(9.14~11.23, 총 6회, 강사 김용휘) 등을 실시하였고, 올해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술 연구 사업 : 동학 아카데미 운영(상반기(6월), 하반기(11월) 연 2회 강좌, 4~6회 실내 강의와 수련체험), 동학 관련 경주 독립운동 조사 연구 계획수립, 수운기념관 개관기념 동학 학술발표회

▶선양 사업 : 태묘와 수운 대신사상 문화재 지정을 위한 지역사회 공론화, 해월 신사 생가 복원사업과 해월 신사 동상 이전(2019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추진사업, 지자체 및 유관단체의 협력요청,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물 제작), 지역 및 도로 명칭 개정 추진 방안 모색(용담로→동학로 / 현곡면→동학면)

▶연대 사업 : 협의체 구성(동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협의체 구성), 남북간 교류 활동 참여, 3·1운동 관련 행사 참여, 그 외 목적사업과 관련된 행사에 지역단체와 협력활동

▶시민과 함께 하는 동학관련 행사 : 동학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행사(해월 최시형에서 소파 방정환까지, 지역 관련 단체와 연대활동(방정환배움공동체, 경주한살림 등), 경주 동학 문화 축제 운영(경주시민의 참여와 문화예술인 적극 활용방안 모색), 동학 유적지 답사 연 2회 운영, 동학 둘레길 조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생가 ↔ 태묘 ↔ 용담정)

▶수운기념관 및 수련관 위탁운영에 대한 수탁운영 사업

▶조직 강화 및 홍보 : 정기이사회 개최,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물 제작, 회원확보를 위한 참여활동 및 홍보 방안 모색 (글/사진. 최상락)

##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삼보일배

-한울연대, 종교환경회의 탈핵순례



한울연대(상임대표 이미애)는 종교환경회의와 함께 2월 17일 탈핵순례를 광화문 일대에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종교환경회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카톨릭기후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투쟁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든 대선후보의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행진하였다. 행진에는 한울연대에서 정미라, 백영희 두 동력이 1km 넘는 길을 삼보일배로 참여하였다.

한편, 강원도 삼척시 맹방 해변 인근에 건설 중인 삼척화력발전소는 포스코에너지와 두산중공업 등이 출자한 것으로, 한국의 마지막 석탄 발전소로 막차를 탔다. 한전은 삼척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서울·경기 수도권에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새로운 송전선로를 건설한다는 입장이며, 강원도 삼척과 평창, 정선, 횡성, 홍천 등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삼척발전소는 공정률 70% 육박하고 있고 퇴출될 경우 매몰비용은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울연대)



### 東學동학의 原流원류

葦菴 趙基周 編著, 총426쪽

이 책은 포덕 포덕120년(1979)에 간행된 '東學의 原流' 초판본의 한문과 한자를 알기 쉽게 한글 새김으로 바꾸어 재간행한 수정본이다. 천도교의 역사를 수운대신사, 해월신사, 의암성사, 춘암성사 편으로 나누어 포덕 연대순으로 편술된 이 책은 교사는 물론 천도교의 정신사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술하였다. 또한 독자의 편의를 위해 색인을 곁들였으며, 교리·교사 및 설교와 강도회, 강좌 등의 주제를 정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구입문의 천도교중앙대교당 관리실(010-2272-7397)

## 서울교구 여성회 정기총회

- 2월 20일, 새임원 선출 등



서울교구 여성회(회장 박태량)는 2월 20일 시일식 후 중앙대교당에서 포덕 16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 박태량 회장을 재선출하고 임원진을 구성했다.

한주희 총무부장의 사회로 개최된 정기총회는 포덕162년 사업결과 및 결산서 등 의안을 심의하였다. 이어 계속된 임원선거에서 현 박태량 회장을 재선출하였고, 부회장 조보아·김정화 동덕, 감사 박징재·이춘희 동덕이 선임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윤태원 교구장은 격려사를 통해 “거룩한 내집 부녀란 말처럼 여성이 사회적 부흥을 위한 자리”라 강조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잘 구성하도록” 당부하였다. (글.사진/서울교구여성회)

## 부산시교구 여성회 정기총회

- 2월 27일, 새임원 선출 등



여성회 부산시지부는 2월 2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진일당 강선순, 부회장 시정당 문춘옥, 근신당 광정숙, 감사 수인당 손윤자, 성신당 전춘자, 교화부장 경심당 강민엽, 포덕부장 정일당 박정일, 총무부장 진신당 박옥자, 재무부장 일심당 박시애, 조직부장 혜운당 김정은, 사업부장 수신당 양숙자. (글.사진/부산시교구)

## 서울교구 특별기도 봉행

- 2월12일부터7일간 온라인으로



서울교구(교구장 윤태원)는 포덕 163년 동계수련 수련 기간 중 마지막 주인 2월 12일(토)부터 18일(금)까지 매일 한 시간동안, “한결같은 정심수도로 생활의 근본을 지키자”를 목적으로 7일간의 특별기도를 온라인으로 봉행하였다. 특별기도는 주문3회병송, 현송, 묵송, 신사주문105회합송, 경전봉독 순으로 진행되었고, 기도 동영상은 서울교구삼경방(단특방), 서울교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서울교구)

로 봉행하였다. 특별기도는 주문3회병송, 현송, 묵송, 신사주문105회합송, 경전봉독 순으로 진행되었고, 기도 동영상은 서울교구삼경방(단특방), 서울교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서울교구)

## 수원교구 입교식 봉행



지난 1월 2일 수원교구에서 시일식 후 박수현 동덕이 오성덕 동덕을 전교인으로 입교식을 봉행하였다. 박수현 동덕은 “나와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평안을 위하여 여러 종교를 찾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천도교처럼 정곡을 찌르는 가르침을 주는 곳이 없더라”고 입교소감을 밝혔다. (수원교구)

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천도교처럼 정곡을 찌르는 가르침을 주는 곳이 없더라”고 입교소감을 밝혔다.

## “남해에 동학 천도교를 다시 꽃 피우겠습니다”



남해중앙교당에서 열린 남해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김환용 이사장과 한상봉 남해시대 기자와의 1월 25일 인터뷰를 소개한다./편집실

■ 2004년 발간된 천도교남해교사를 보니 학창 시절 선구교구 학생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도교 교령을 역임하신 우암 김명진 종법사님의 권유로 중학교 때 천도교에 입도해 현재까지 천도교인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천도교선구교구 학생회장을 지냈고 경상대학교 시절엔 동학연구회를 조직해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회에 나와 천도교 선구교구 교무부장, 교화부장을 거쳐 9년 전 도훈 원직을 받았고, 6년 전 천도교 남해교역자운영위원장을 3년 동안 맡은 바 있으며, 올해 다시 남해교역자운영위원장과 3:1운동발상기념사업회장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결성된 남해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도 맡게 되었습니다.

■ 남해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설립을 위한 그간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남해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얼마 전 남해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퇴직한 해암 정성완 님의 제안으로 천도교 남해교역자 운영위원회 10여 분이 미조 팔랑계 동덕집에서 만나 기념사업회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같은 달에 동학실천시민행동과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2월 14일 천도교 남해중앙교당에서 창립총회를 통해 제가 이사장에, 훈암 여성훈, 진심당 이우심님이 부이사장에, 동학실천시민행동의 박옥섭 님이 감사에 선임되었습니다.

■ 남해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예정인가요

▷남해동학농민혁명에 관련해 전해지는 이야기와 역사적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옛날 동학에 참여했던 분들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를 수집하고 검증하고 기록하는 일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남면 임진성과 여장협 접주 묘소 성역화 사업 등 동학 유적지를 정비하는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남해동학농민혁명기념 행사를 통해 동학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갑오동학농민혁명이나 기미년3:1혁명이 프랑스 시민혁명 이상으로 가치 있는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는 행사와 사업을 발굴하는 데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 남해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남해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도 제정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조례 제정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조례 제정은 남해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현재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며, 곧 있을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압니다. 남해지역의 동학농민 혁명이 재조명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믿습니다.

■ 끝으로 천도교 동덕들과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해지역은 동학이 활발했고 천도교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천도교 성지였습니다. 남해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남해에 동학과 천도교를 꽃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다시 동학 천도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현대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1894년과 지금의 정세는 다를 바 없습니다. 1890년대에는 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 정세는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주성, 자주외교, 남북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우리 사업회가 밀알이 될 것입니다. 그 길에 동덕님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 대동교구 입교식 봉행



지난 1월 9일 대동교구에서는 설화당 김정희 동덕의 전교로 김정하 동덕의 입교식을 봉행하였다. (대동교구)

## 공 고

### 제40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교헌 제29조에 의거 제40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포덕 163년 3월 17일(목요일) 오전 10시 / 2. 장 소 : 천도교중앙대교당 / 3. 안 건 : (1) 교헌개정안 (2) 임원선출 (3) 기타

포덕 163년 2월 9일

천도교중앙총부

교령 송 범 두



교헌 제81조에 의거 교헌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현 행   | 개 정 안  |
|---|--|
| 第二十四條 淵源會(연원회)는 每年(매년) 三月(삼월)에 議長(의장)이 召集(소집)하며 淵源會(연원회)의 運營(운영)은 規定(규정)으로 定(정)한다.  | 第二十四條 1. ~중략~ 二月(이월)에 議長(의장)이 召集(소집)한다.<br>(신설)<br>2. 淵源會(연원회)는 三(삼)年(년)마다 定期(정기)大會(대회) 이전에 原(원)住(주)職(직)이  포함된 別(별)도의 推戴(추대)委員會(위원회)를 構成(구성)하여 教領(교령)을 推戴(추대)하며, 節次(절차) 등은 規程(규정)으로 定(정)한다.  |
| 第二十七條 大會(대회)는 다음 事項(사항)을 議決(의결)한다.<br>1. 教憲(교헌) 및 儀節(의절)의 議定(의정)<br>2. 教領(교령) 監查院長(감사원장) 中央(중앙)監查(감사) 宗議院(종의원)議員(의원) 維持(유지)財團(재단)理事(이사) 및 福祉(복지)法人(법인)理事(이사)의 選舉(선거)<br>3. 財政(재정)處分(처분)에 關(관)한 事項(사항)<br>4. 各(각)機關(기관)으로부터 提案(제안)된 事項(사항) 및 其他(기타) 重要(중요)한 事項(사항)   | 第二十七條 ~중략~<br>1. ~중략~<br>(신설)<br>2. 第二十四條 제2호에 따라 推戴(추대)된 教領(교령)의 認准(인준).<br>3. 본문내용 현행 2호에서 '教領(교령)' 삭제 ~중략~<br>(신설)<br>4. 中央(중앙)監查(감사) 宗議院(종의원)議員(의원) 維持(유지)財團(재단)理事(이사) 및 福祉(복지)法人(법인)理事(이사)의 選出(선출)은 規程(규정)이 定(정)하는 바에 따라 銓衡(전형)委員會(위원회)에서 選出(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銓衡(전형)委員會(위원회)의 構成(구성)과 運營(운영)에 關(관)하여는 規程(규정)으로 定(정)한다.<br>5. 본문내용 현행 3호와 같음<br>6. 본문내용 현행 4호와 같음 |
| 第二十九條 定期(정기)大會(대회)는 三(삼)年(년) 一次(일차) 三月(삼월) 셋째주 중에 開催(개최)하되 此(차)를 教領(교령)이 召集(소집)한다. 但(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境遇(경우)에는 臨時(임시)大會(대회)를 召集(소집)한다.<br>1. 緊急(긴급) 重大(중대)한 事實(사실)이 있을 時(시)<br>2. 大會(대회)構成員(구성원)中(중) 三分之(삼분지)一(일) 以上(이상)이 事由(사유)를 具(구)하여 連署(연서) 要求(요구)할 時(시)  | 第二十九條 ~중략~ 三月(삼월) 初(초)에 ~중략~<br>1. ~중략~<br>2. ~중략~   |
| 第四十三條 宗務院(종무원)은 教化(교화) 教務(교무) 經理(경리) 및 社會文化(사회문화) 등 (등) 各(각)觀(관)을 設(설)하고 그 觀長(관장)은 宗務委員(종무위원)으로서 補(보)한다.  | 第四十三條 宗務院(종무원)의 各(각)觀(관)의 設置(설치), 運營(운영) 등에 關(관)하여는 規程(규정)으로 定(정)하고 各(각)觀(관)의 ~중략~   |
| 第八十條 教職(교직)은 原職(원직) 住職(주직) 禮遇職(예우직) 三種(삼종)으로 한다.<br>1. 原職(원직)은 道正(도정) 道訓(도훈) 教訓(교훈) 信訓(신훈)으로 하며 此(차)는 一切(일체) 無期職(무기직)으로 한다.<br>2. 住職(주직)은 教領(교령), 淵源會(연원회) 正(정), 副議長(부의장) 및 幹事(간사), 宗務院長(종무원장), 常主(상주)宣道師(선도사), 宗議院(종의원) 正(정), 副議長(부의장) 및 事務長(사무장), 宗議院(종의원)議員(의원), 監查院長(감사원장), 監查(감사), 宗務委員(종무위원), 教區長(교구장) 其他(기타) 任命(임명)職(직)으로 하며 그 任期(임기)는 三年(삼년)으로 하되 教領(교령)의 任期(임기)는 三年(삼년) 單任(단임)으로 한다. 但(단), 補缺(보결)任員(임원)의 任期(임기)는 前任者(전임자)의 殘期(잔기)로 한다.<br>3. 禮遇職(예우직)은 宗法師(종법사) 宣道師(선도사)로 한다 | 第八十條 ~중략~<br>1. ~중략~<br>2. ~중략~ 教領(교령)은 1차에 한하여 連任(연임) 할 수 있다. 但(단), 補缺(보결)任員(임원)의 任期(임기)는 前任者(전임자)의 殘期(잔기)로 한다.<br>3. ~중략   |
|   | (신설)<br>부칙:<br>第八十八條(教領 推戴(교령 추대) 등에 關(관)한 適用(적용)例(례)) 第二十四條(제이십사조) 제2호, 第二十七條(제이십칠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 第八十條(제팔십조)의 改正(개정)은 이 教憲(교헌)의 施行(시행) 후, 最初(최초)로 開催(개최)되는 大會(대회)에서 推戴(추대)되는 教領(교령)부터 適用(적용)한다.  |
|   | 第八十九條 第四條(제사조)에 불구하고 教領司(교령사) 玄機司(현기사)는 地方(지방)에 置(치)할 수 있다   |